

2025. 12. 31. Vol. 30

그래도

"그래도"란 섬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만 있는
이어도 만큼 신비한 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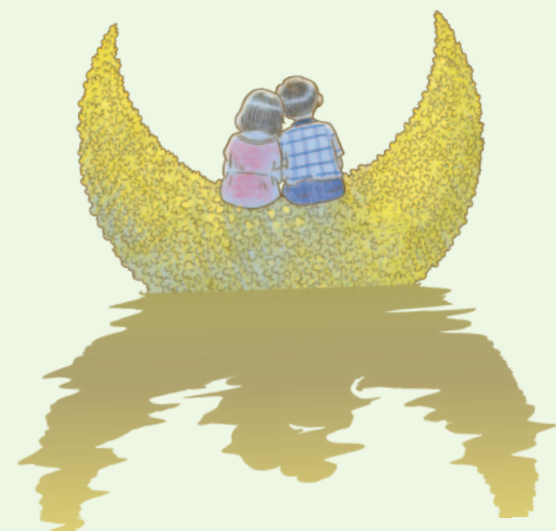
미칠 듯 괴로울 때,
한없이 슬플 때,
증오와 좌절이
온몸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내며 나타나는 섬
그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섬 곳곳에는
"그래도 너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니?"
"그래도 너에겐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 하단다"
같은 격려문 들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래도"는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서와 위로의 섬입니다.

당신의 그래도는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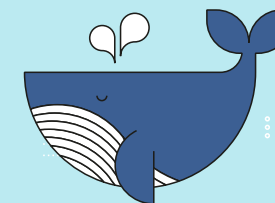
이수동<토닥토닥 그림편지>



STELLA

STELLA

- 04 생활인 글
- 08 돌봄선생님 글
- 12 스텔라의 이모저모
- 20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22 후원자 명단



CoverStory

스텔라의집 아기 천사들

발행인 조영희
발행처 양육지원시설 스텔라의 집
www.stellahouse.kr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26번길 40 (문학동)
전 화 032) 864-0054~5
기 획 스텔라의집
편 집 (주)도서출판 디자인어클럽
032) 613-6352



불안 속에서 피어난 사랑

글 라온엄마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너의 존재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고,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던 너에게 나는 기쁨과 축하보다 절망과 슬픔을 더 크게 느꼈어. 너무 힘든 시기에 찾아온 너를 나는 외면하고 원망했던 것 같아.

돌이켜 보면, 그건 너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웠던 내 삶의 상황 때문이었어. 안 좋은 감정들만 가득 떠올랐어.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버거웠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정말 좋은 가족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산 시설에 들어갔어. 그 곳에서 보살핌과 안정을 찾으며, 애써 너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내가 점점 마음이 바뀌어 가고 있었어.

출산 시설에 들어갈 때만 해도 ‘마음 주지 말고, 빨리 태어나서 좋은 가족을 만나 떠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를 품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 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떠올리게 되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정성껏 지어줘서였을까, 어느새 내 마음속에 너라는 존재가 신경 쓰이는 자리로 들어와 있었어.

출산 날, 병원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처음 느꼈어. 나 역시 첫 출산이라 힘들고 아팠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던 너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느낌을 처음 알았어. 얼굴에 있던 특이한 혹들과 다리를 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내가 널 사랑해 주지 못해서, 신경 쓰지 않아서 네가 아픈 건 아닐까’하는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때 처음 ‘이게 모성일까’라는 생각을 했어. 수유실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도 사라졌고, 퇴원

할 때까지 매일 너를 보러 갔어. 그때의 감정은 사랑이기보다는 미안함이었던 것 같아.

다시 출산 시설로 돌아가 돌봄 선생님과 함께 너를 돌보며 입양을 준비했어. 더 정이 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서둘렀어. 하지만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시간은 더디게 흐르는데, 그 시간들이 나에게 점차 의미가 되어 갔어. 너는 점점 나를 엄마로 인식하는 것 같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보면 웃어 주었어.

그러다 너를 보내는 날이 정해졌고 준비를 해야 했지만 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어. 밤에 너를 재우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너를 보내고 나서 과연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어. 그러다 보내기 하루 전날,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인 스텔라의 집을 만나게 되었어. 우리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나는 이곳에서 엄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고 서툴렀어. 나 역시 엄마는 처음이었기에 너의 울음소리를 바로 알아채지 못해 너를 힘들게 하기도 했어.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너와 하루하루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너의 모습은 지친 나를 웃게 해 주었어. 너의 행동 하나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너의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났어.

하지만 나는 아직 잊지 못해. 너의 작은 심장이 멈췄던 그날을. 가벼운 감기로 병원을 다녀왔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거실에서 잠시 쉬던 네가,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이 없었을 때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너를 흔들며 부르고, 응급 처치를 하며 정신을 붙잡았지만 몇



시간 뒤 다시 경련을 일으키는 너를 보며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 작은 손에 바늘이 꽂히던 그날, 엄마는 네 대신 아프고 싶었어.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며 엄마의 마음은 하루하루 불안으로 약해졌고, 너의 일에는 항상 불안이 먼저 나왔어.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왼쪽 다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역장이 무너졌어. 치료를 받아도 다리를 질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 가슴 아팠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과하게 보호하고 많이 제한했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것이 널 보호하는 일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엄마는 후회해. 건강만을 걱정하느라 너의 많은 순간들을 놓쳐버린 것 같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예쁜 모습들, 너의 소중한 시간들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어.

그 시절, 엄마에게 엄마의 인생 시간은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어. 차라리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라온이를 만나고 나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어. 너무 예쁜 라온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렇게 느끼는 엄마가 낯설고 새로웠어.

엄마의 인생은 늘 회색빛이었고 아무 감정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어. 그런데 널 만나고 세상이 빛나고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엄마는 라온이를 온전히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라온이와 함께 엄마도 성장하고 있었어. 라온이가 엄마를 성장시켜 줬어.

사실 엄마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 내 마음속 어두운 마음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았거든.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일은 없을 거라 믿어왔어.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마음에 새겼었어.

사랑을 주는 법을 몰라 너를 키우며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 매일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사랑이 부족한 엄마라서 너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밤마다 잠든 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 혹시 네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엄마처럼 될까 봐 너무 두려웠어. 엄마는 불안정한 가족 울타리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며 외롭고 또 외로운 세상을 살아왔거든. 지금도 마음 한편엔 지독한 외로움이 남아 있어. 그래서 너에게 만큼은 이런 외로움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몰라 오히려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더 미안해.

라온아, 그래도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이 세상 누구보다 엄마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은 너야. 엄마를 온전히 사랑해 준 너에게 엄마는 매일 고마워. 비어 있던 엄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고 있는 너를, 엄마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엄마에게 와 줘서 고마워. 이제 너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예쁜 목소리로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엄마의 비어 있던 마음은 너의 행복으로 가득 차고 있어.

엄마의 사랑은 라온이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을 거야. 라온이와 엄마의 모든 날들이 행복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엄마는 오늘도, 내일도 흔들림 없이 사랑할게. 라온이가 엄마에게 아낌없이 건네준 사랑 덕분에 엄마의 마음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갖게 되었어. 두려움보다 책임을, 불안보다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힘도 라온이가 엄마에게 가르쳐 주었어.

이제 엄마는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온이를 지켜낼 수 있는 어른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해. 그래서 언제나 라온이에게 든든한 울타리이자 안전한 집이 되어줄게.

엄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준 따뜻한 사랑에 고마워.
나의 사랑,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라온아. 너는 엄마의 세상이야.



낮섬에서 신뢰로, 함께 성장한 시간

글 김영심 아이돌봄선생님



스텔라의 집에서 개인 돌봄을 하며 인연이 닿아 공동 육아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설렘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앞섰던 첫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마주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과 행동에는 ‘낯선 선생님’을 바라보는 경계와 호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살피기만 하고 쉽게 다가오지 않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 만나는 돌봄의 자리에는 늘 긴장과 걱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가장 먼저 풀어준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선생님” 하고 부르며 놀이를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고, 제 품으로 안기거나 제 손을 잡고 놀자고 이끌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제 마음에 자리하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표현은 언제나 가장 빠른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의 이유식을 먹이는 것이 힘들어 속상해하시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왔던 방법을 조심스럽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놀이방에서 어떤 장난감으로 어떻게 놀았는지, 아이가 특히 좋아하던 놀이와 반응, 배변 습관과 식습관까지 아이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어머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신뢰는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돌봄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 전에 만났던 아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세상을 향해 내딛더니, 어느새 “선생님” 하고 뒤를 졸졸 따라와 장난감을 들고 놀자고 합니다. 돌을 지난 아이들은 겨우 단어 하나 말하기도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문장을 이어 말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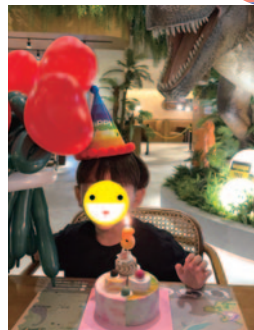
어머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에 한편이 되어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동시에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그렇듯, 이곳에서도 아쉬운 이별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기간이 되어 스텔라의 집을 떠나는 아이와 어머님을 배웅하며 느꼈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분명 있었지만, 그 시간은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어머님이 새로운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이곳에서 아이들과의 만남은 세상 속 어른들과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깊은 행복의 만남이었습니다. 비록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다름으로 보여준 ‘행복의 얼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어머님들 모두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웃음 가득한 날들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조용히 기도해봅니다.



생일을 축하해요

일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스텔라 가족들의
생일을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〇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렴 ~♡



〇〇 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공주처럼
예쁘게 자라라 ~♡



〇〇 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매일 매일
행복하세요 ~♡



〇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렴 ~♡



〇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〇〇 왕자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〇〇 공주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미소가 너무 예쁜
공주님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매일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



〇〇 왕자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
~♡



〇〇 공주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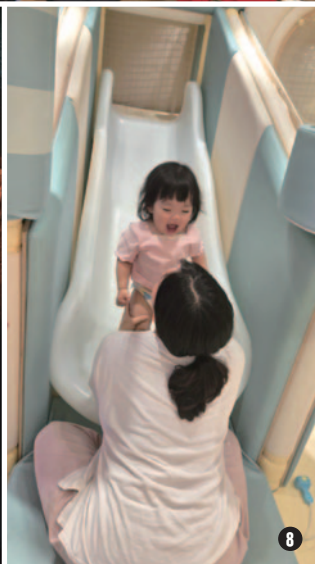
〇〇 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〇〇 왕자님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렴 ~♡

가족 관계개선 사업

- ① ② ③ 명절모습
④ ⑤ ⑥ 중무식
⑦~⑮ 유아 신체발달놀이





여가 문화 활동

- ①② 개별가족여행
- ③④ 나만의 향수만들기
- ⑤⑥ 디퓨저만들기
- ⑦ 쓱썬질 체험
- ⑧ 뮤지컬관람
- ⑨ 방탈출 체험
- ⑩~⑮ 여름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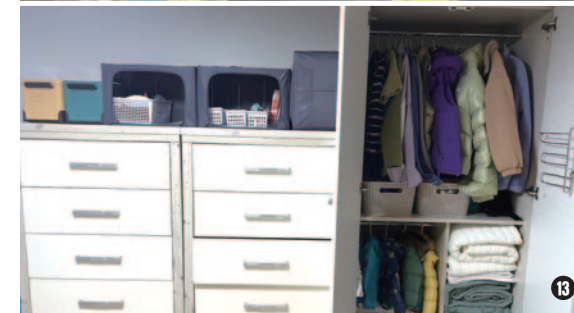
상담사업

- ①② 집단상담



부모교육

- ①② 그림책푸드테라피
- ③ 약물오남용교육
- ④⑤⑥ 이유식 만들기
- ⑦ 성교육
- ⑧⑨ 양육코칭교육
- ⑩ 폭력 학대 예방교육
- ⑪ 인권교육
- ⑫⑬ 정리정돈
- ⑭ 재난안전교육



자원봉사 활동

- ①② 현대모비스 인천부품사업소 사회공헌활동



사후관리 사업

- ①~② 명절행사
- ③~⑥ 영종도 여행
- ⑦~⑫ 제주도 캠프
- ⑬~⑭ 종무식



운영사업

- ① 사업평가회의
- ② 종사자 워크숍
- ③ 운영위원회
- ④⑤ 직원교육 에니어그램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Thank you!

스텔라의집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12월)



현대모비스 인천부품사업소
상품권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용품 후원



길병원
상품권 후원



김승주님
아기용품 후원



남인천방송
라면 후원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밝은 앞날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엄마와 아기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펴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방법 하나은행 : 488-910013-69204
예금주 : 스텔라의집
국민은행 : 237201-04-136742
예금주 : 인천교구스텔라의집
농협 : 351-0056-3198-13 / 예금주 : 스텔라의집

물품후원 생필품, 아기용품 등

혜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전화번호 032-864-0055 / Fax 864-0051

오시는길 지 하 철 : 1호선 주안역 버스 65번, 65-1번,
신동아3차 하차 등대교회 방향
시내버스 : 구월동에서 111-2번
문학초등학교 앞 하차, 등대교회 방향



대흥참기름
기저귀 후원



미추홀경찰서어린이집
기부금



부영약국
쌀후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김치후원



송의동성당
김치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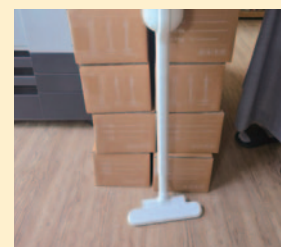
인천관교여자중학교
아기이불 후원



인천여자의사회
기부금



인천지방법원
생활용품



주식회사 리모프렌즈
진공청소기 후원



캠박스
쌀 후원



학산나눔재단
김치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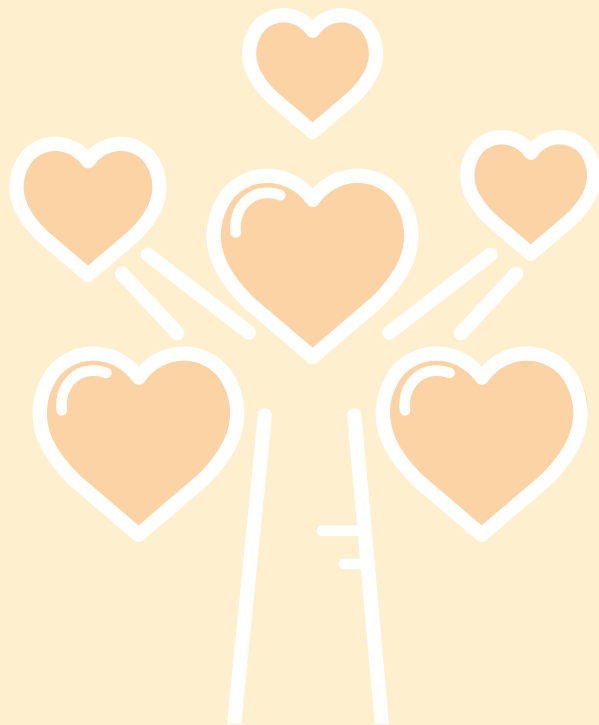


한국순교성인성당
김치 후원

나눔은 또 하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2025.01~2025.12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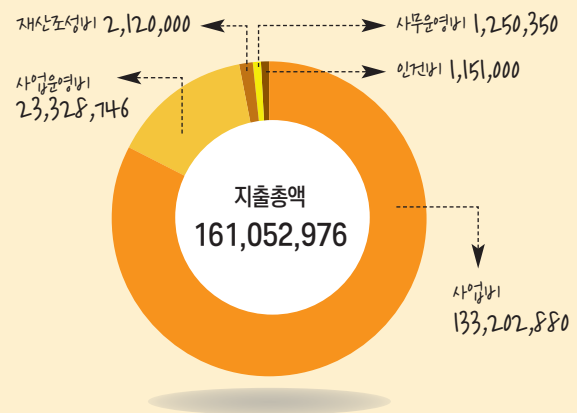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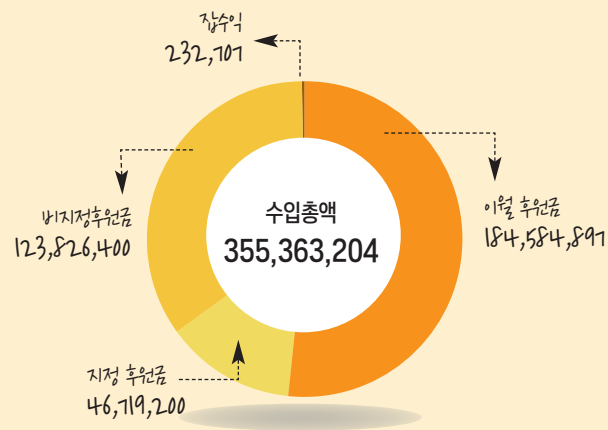
■ 수입

후원금의 종류	금액
이월후원금	184,584,897
지정후원금	46,719,200
비지정후원금	123,826,400
잡수입	232,707
계	355,363,204

■ 지출

사용내역	금액
인건비	1,151,000
사무운영비	1,250,350
재산조성비	2,120,000
사업운영비	23,328,746
사업비	133,202,880
계	161,052,976

※ 지정후원금은 주거자립비 지원 및 장학금 용도임.



후원해주신 분들

● 개인

강*욱 강*모 강*자 강*선 고*희 고*준 기부(익명) 김*현 김*재 김*겸 김*재 김*경 김*연 김*현 김*길
 김*자 김*호 김*자 김*중 김*애 김*리 김*선 김*은 김*민 김*례 김*금 김*현 김*규 남*국 도*욱 레오
 루피나 류*지 류*석 박빅토리아 박*윤 박*배 박*서 박*숙 박*욱 박*자 박*숙 박*구 박*돈 박*형 박*진
 박*진 박*숙 방*수 배*모 베스트(익명) 변*우 서*원 서*순 서*주 성*자 성*경 성*정 손*진 송*찬 신*채
 신세라피나 심*숙 안*순 오*정 원*훈 위*화 유*월 유*원 유*숙 유*분 유*순 유*희 윤*모 윤*은 윤*미
 음*희 이*복 이*무 이*룡 이*옥 이*민 이*윤 이*연 이*옥 이*희 이*권 이*현 이*희 이*솔 이*옥 이*연
 이*용 이*관 이*현 이*현 이*현 이*자 이*아 이*섭 익명 임*옥 임*자 임*자 임*기 장*자 장*귀 장*원
 전*희 전*서 전*택 정*영 정라파엘라 정*숙 장*숙 조*희 조*순 지*자 최*화 최*희 최*선 최*미 최*호
 최*우 친구(익명) 한*진 한*성 한*성 한*숙 홍*금 황*숙 황*현 황*희

● 단체

(재)인천교구 리더부동산 중개법인 미추홀경찰서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대덕복지재단 성북동수도원
 용현5동사회복지분과 용현5동성당 용현교회사랑2속 이진숙소아과 인천가톨릭의사회
 인천시청인구전략기획과 인천여의사회 제물포성당 (주)상도 주식회사 리모프렌즈
 주안1동성당 주안3동빈첸시오회 (주)진명프리텍 (주)코벤 아이러브피플 청라치과의원 나*찬
 청수성당 태양노브공업(주) 하나클럽 학익동성당사회복지회 한국순교성인성당
 한국여자의사회 현대모비스(주) 화인특수지(주)

물품 후원해주신 분들

관교여중학부모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이강이 길병원 김*주 김*혜
 남인천방송 대흥참기름 동서테크 미추홀구여성단체협의회 미추홀구청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송의동성당 심*윤 원당초등학교어린이집 이*경
 이진숙소아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지방법원 정*길 주식회사 리모프렌즈
 청수성당 최*윤 캠퍼스 학산나눔재단



| 미션 |

스텔라, 꿈을 재창출하는 싱글맘들의 홈!

| 핵심가치 |

- 사람이 희망이다.
- 다르니까 조화롭다.
- 나는 내가 키운다.

스텔라의 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26번길 40 (문학동)
Tel. (032)864-0055 Fax. (032)864-0051
www.stellahouse.kr

stellahouse